

보건복지 ISSUE & FOCUS



제386호 (2020-17)
발행일 2020. 05. 28.
ISSN 2092-7117

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30147)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(1~5층) T 044)287-8000 F 044)287-8052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특집호 ⑫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- 보건의료산업 측면을 중심으로 -



이상영
보건정책연구실 명예연구위원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, '코로나19')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방역적 긴장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이에 대응하여, 생활 방역과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관리 강화, 비대면 산업 발전 및 생활 방역 기술의 신산업화, k-방역 모델의 글로벌 스탠더드화,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복구 지원 및 의료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 지원, 국제 보건의료 협력 활동의 이니셔티브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01. 코로나19 감염 상황 전망

- ◆ 지역사회 신규 확진 상황이 당분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겠지만 일부 진원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 클러스터 발생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.
 - 이후 추석 연휴, 환절기 등에 따른 신규 확진 증가가 우려되며, 동절기에 들어서는 감기·인플루엔자와의 혼재, 숨은 감염자, 변종 등에 따른 확산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.
 - 효과적인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역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며, 장기적으로는 토착화될 가능성도 존재함.

- ◆ 세계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현재의 대유행 국가 외에 나머지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들 국가가 감염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.

02.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 여건 변화

◆ 의료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글로벌 입지 상승

-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
 - 효과적 대응 체계 운영을 가능하게 했던 의료 자원 동원 능력, 제도적 인프라 및 공공보건의료체계, 의료기술, 산업적 역량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임.
- 백신주권 확보 및 자급화라는 과거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백신, 치료제, 진단키트와 장비 등의 개발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게 될 것임.
- 과거에는 정보기술(IT) 등 여러 산업 영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사장된 사례가 있었으나, 향후에는 의료 및 방역 등의 영역에서 기술 개발과 글로벌 수요 확보 등으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것임.

◆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
- 서구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치중해 왔음.
 - 이는 고위험 감염병 관리 및 의료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지는 결과를 초래함.
- 향후에는 기존의 효율성 중심 패러다임에서 위기 대응 및 의료안전망 구축·운영 역량 확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.
 - 다만, 고혈압·당뇨 등의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치명률이 높았음을 인지하고, 앞으로는 만성질환자 관리와 감염병 예방·통제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조할 전망이다.

◆ 국가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 추세의 세계적 확산

-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위험 감염병 대응 물자를 전략물자화하여 해외 의존적 공급 구조를 탈피하려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임.
 - 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 물자를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, 자국 및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 및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추세가 확산될 것임.
-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동집약적 의료용품 생산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.

◆ 의료 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자원 동원 체계의 중요성 증가

- 긴급한 대규모 의료 수요에 따른 의료 붕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부문 이외 타 부문의 사회적 가용 자원을 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고, 의료 인력·병상·장비·용품 등을 긴급 조달하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질 것임.
 - 대규모 병상을 예비 자원으로 보유하는 것은 의료 자원 관리 및 서비스 공급 체계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타 부문의 사회적 자원을 일시적으로 의료 자원으로 전환·활용*하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질 것임.

* 한국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례

◆ 고위험 감염병 통제 기술 개발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으로 대두

- 신약 및 진단·검사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면서,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융합기술 연구·개발(R&D)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임.

◆ 생활 방역 기술이 새로운 서비스 및 산업 영역으로 등장

- 생활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고위험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·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등장할 것임.
 -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·검사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임.

◆ 감염병 이외 분야의 미충족 의료 수요 증가와 한국으로의 인바운드 환자 증가

-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타 영역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누적되었으나 의료체계 복구가 지연되는 국가의 환자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임.

◆ 일차의료에서 방역사업의 중요성 증가

- 지역공공보건의로, 학교보건, 산업보건 등에서의 감염병 발생 탐지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임.
 - 가정, 지역사회, 학교, 산업장 등의 생활 환경, 근로 환경,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로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이 커질 것임.
-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방역적 긴장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므로 생활양식 및 사회 활동이 감염병 통제와 예방에 유리한 패턴으로 변화할 것임.
 -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정착되고 소비 활동, 근로, 교통,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활동이 비대면으로 대체될 것임.
- 기후변화, 지역 환경, 건강 생활 및 개인위생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커질 것임.

◆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약 체결 움직임

- 외부효과(externality)가 큰 고위험 감염병 유행의 특성으로 인해 각 국가의 투명한 감염 정보 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.
 -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 및 국가 간 지식·경험 공유, 소요 물자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국제 공조 의무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함.

03. 향후의 주요 정책 방향 및 과제

1 제고된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R&D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선도 산업 육성

◆ 백신 및 치료제 개발 R&D 지원 강화

- 국가 백신 개발 사업 강화,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, 민간 R&D에 대한 지원 확대.

◆ 백신 및 치료제 임상시험 기반 강화

- 신속한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지원, 임상시험을 위한 국내 환자가 부족할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 등.

◆ 지속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적 홍보

- 의료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'메디컬 코리아(Medical Korea)', 엑스포, 전시회 등 국가적 홍보 활동 지속 추진.

2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생활 방역 기술의 신(新)산업화

◆ 원격 및 비대면 서비스 산업 개발

- 자동화 진단 검사 시설·장비, 로봇틱스(Robotics)를 활용한 비대면 기술(untact technology), 원격 건강관리 등과 관련한 지원 및 관련 규제 개선.
- 생산, 영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모형 개발 및 확산 등 산업 현장의 신속적 대응력 강화.

◆ 생활 친화적 방역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

- 생활 친화적 격리시설 모형 개발, 생활 환경에서의 감염 노출 가능성 예측 인공지능(AI) 개발, 개인정보 보호형 감시 기술 개발, 치료·요양·보호 통합형 서비스 시설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및 관련 산업 창출.
 - 생활 친화적 격리시설 모형 개발: 대면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모형.
 - 생활 환경에서의 감염 노출 가능성 예측 AI 개발: 사회 활동이나 지역이동 시 사전에 바이러스 감염 노출 가능성을 예보해주는 프로그램.
 - 개인정보 보호형 감시 기술: 감염병 확산 감시에 있어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IT 기술.

3 각국의 의료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

◆ 국가별 맞춤형 여건 진단 및 대응 체계 설계 지원

- 각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방역 모델과 관련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 발굴.

◆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진출 지원

- 병원 내 감염 관리, 음압병실, 음압 앰블런스, 진단 시약 및 진단 장비, 의약품, 의료용품 등의 생산기업, 컨설팅 기업 진출 지원.

4 감염병 통제 조기 성공 국가로서의 이점을 기회로 활용

◆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국가의 환자 유치 전략 마련

-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누적된 미충족 의료 욕구를 단기에 해소할 수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환자 유치 활동 강화.
 - 중증 질환자로서 장기간 치료를 대기해야 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유치.

◆ 해외 기업 유치 및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(re-shoring) 지원

- 타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유행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조기에 성공한 이점을 활용하여 생산 시설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 및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(re-shoring) 지원.

5 한국의 경험 공유 및 국가 간 보건의로 협력 활동의 이니셔티브 확보

◆ k-방역 모델 표준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립

- 코로나19에 적용된 3T(Trace-Test-Treat: 추적-검사-치료) k-방역 모델을 체계화하여 국제표준으로 확립.
 - 감염자 추적·감시, 의심자 및 환자 관리, 소요 자원 확보, 업무 처리 절차, 정보 관리, 법·제도적 인프라 등을 국제표준화함.

◆ 국가 간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상호 인정 주도

- 각국에서 입국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입국자 격리 조치는 상당 기간 존속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에 따라 출발국에서의 바이러스 검사 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격리를 면제할 수 있는 국가 간 협약의 필요성 증대.
 - 국제회의, 비즈니스 등에서 초청 기관이 방문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 확인서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검사 확인서 등을 개발.
- 바이러스 검사 확인서 상호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, 국제협약 체결 주도.

◆ 국제기구 등에 대한 한국 전문가 진출 확대

-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보건의로 분야 전반에 걸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(WHO) 등의 국제기구, 주요 국가의 정부 기구, 민간 기구 등에 대한 전문가 파견 확대.

6 감염 확산에 대비한 신속 대응 역량 강화 및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관리 강화

◆ 향후의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최초 감염자 발견 전 단계의 감시 기술 개발

- 최초 발생국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, 바이러스의 특성 등 관련 정보의 조속한 확보, 해외 유입 차단·검역, 지역사회 확산 감시 체계 강화.

◆ 향후의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예비 자원 조달 계획 수립

-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물자 조달, 의료 인력 동원 계획, 병상 및 격리시설 확보 계획 등에 관한 전략계획 수립.

◆ 사회적 자원을 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

- 각종 사회시설 등을 치료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·절차·진료 정보 관리,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, 인력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.

◆ 지역보건의료에서의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

- 보건소,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예방·감시 활동 강화.
- 무증상 및 인과관계 불명의 조용한 전파자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항체 검사 실시.

7 감염·치료 정보 및 의료기관 정보 등 통합 정보 DB 구축·운영

◆ 코로나19 관련 질병 정보 DB 구축·관리

-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 상태에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코로나19 증상, 환자 관리 방법 등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.

◆ 해외 환자 대상 한국 의료기관·서비스 정보 체계 운영 활성화

- 해외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제도, 의료기관 현황, 의료서비스, 의료관광 에이전트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.